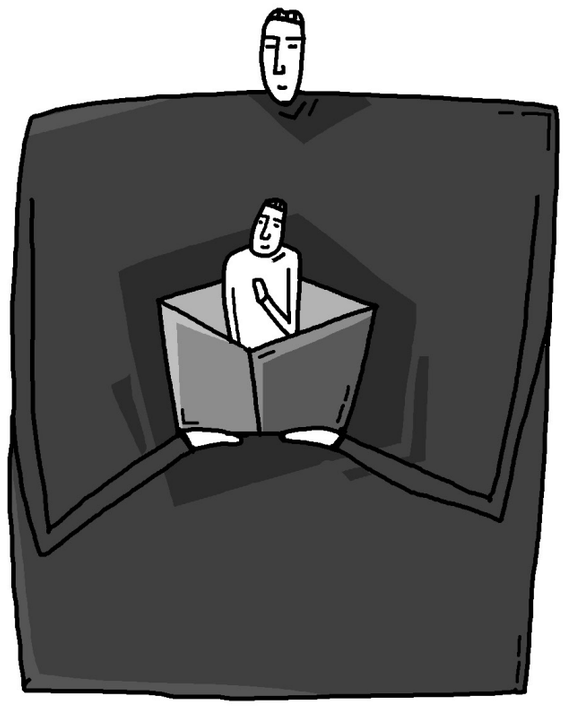


대행 스님

단번에 놓는다면 단번에 지옥고가 무너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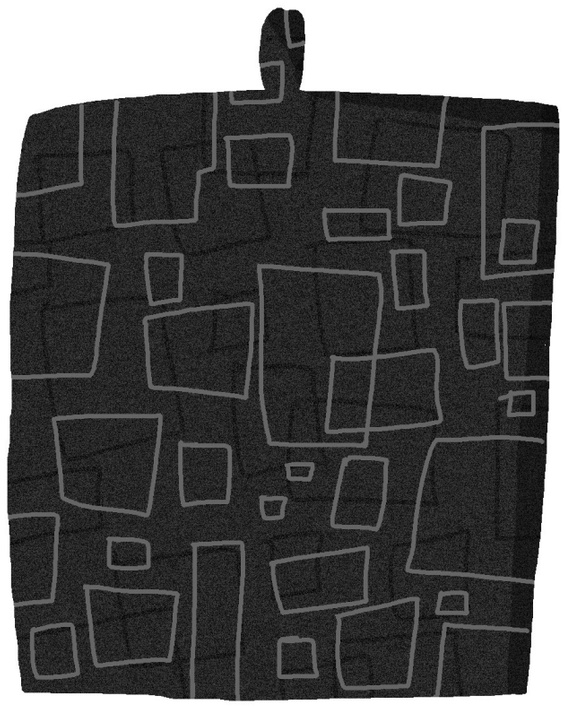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여러분과 더불어 또 만났군요. 항시 같이 돌아가는 이치를 여러분은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체를 아신다면 역대 조사들과 더불어 나도 거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하고 나가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얘길 해 드렸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거 한 가지만 남지 무슨 소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생사도 둘이 아니다 하는 뜻을 몸으로써 실감하고 체험해 봐야 된다는 걸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 생활이 과학일 수도 있고 우리 한생각, 태어나기 이전 본성이 그대로 에너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량은 우리가 많은 마음을 내고 고정됨이 없이 행을 하는 그러한 쪽으로 비유해도 됩니다.

그런데 생사는 둘이 아니다. 물론 그렇죠. 영원한 생명의 본성과 마음 내는 자체가 어떻게 둘이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낼 수 있고, 고정되지 않게 수많은 마음을 낼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둘이 아닌 까닭에 우린 몸도 있고 몸을 움죽거리기도 하고 상대성 원리도 돌아가고 이렇게 무진한 법이 우리들 살아나가는 데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헤아릴 수 없는 업보와 더불어 지옥고를 면하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생이 다 그렇다고 봅니다. 인간으로부터, 수없이 날아다니는 짐승으로부터 모든 걸 따져 보십시오. 사생을 헤아릴 수 있겠나, 벌레로부터.

지난번에도 그런 얘길 했지만, 업보를 면하는 길은 어떠한 것이라야 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업식으로 인해서 업보가 되고 업보로 인해서 인과가 되고 인과로 인해서 이렇게 뭉쳐진 몸뚱이를 가지고서…. 저녁에 한 삼십 분 동안씩이라도 이 몸뚱이가 뭉쳐진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딴 데를 볼 게 하나도 없어요. 첫째, 공부를 하려면 그것부터 알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지난번에 한 얘기를 반복하지마는 조금 더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몸 안을 가만히 볼 때에, 항상 말씀을 드려서 아시고 계시겠죠, 중생이 수십억 마리라고. 그런데 그 중생들이 말입니다, 나는 모두가 부처 아닌 게 없다고 하지만 그 부처 속에는 중생들이 수없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 중생들은 용도에 따라서 모두가 업이 된 것입니다. 업식으로 말미암아, 인과로 말미암아 인연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모인 거거든.

예를 들어서 내가 남에게 못 할 일을 했다 이런다면 그 업으로 인해서 만난 인연이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내가 짐승을 때려죽였다 하면 그 업으로 만난 인연이 되고 할 테니까요. 그러니 헤아릴 수 없이 그 고(苦)가 뭉쳐진 덩어리인 셈이죠, 선이고 악이고, 잘했든 못했든 우리가 살면서 지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살아나가는 이때만 생각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린 사생을 거쳐서, 백지장 하나 사이를 넘어서 진화된 거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모습을 바꿔 가면서 수십억 광년을 거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업식을 통해서 인과가 되고 인과를 통해서 인연이 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인간까지 뭉쳐서 됐다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면 헤아릴 수 없이 그렇게 오면서 벌레로 살다가 업을 짓던 것, 또 짐승으로 살다가 업을 짓던 것, 날아다니는 새로 살다가 업을 짓던 것, 인간으로 살면서 또 업을 짓던 것, 이렇게 지었던 모든 것이 한 생각에 나오는 게 모두가 업보에 의해서죠. 지옥고도 천차만별의 지옥고가 있다 합니다. 그것은 생각해 보면 아시듯이 우리 세상살이 살아나가는 데에도 지옥고가 천차만별로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땅속에서 사는 벌레들은 흑암지옥이라고 불린다고. 독사지옥도 그 중의 하나죠. 이러한 한 가지만 얘기하면 헤아릴 수 없는 그 지옥고를 생각하세요. 천차만별로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주인공'을 생각해 봅시다. 이 몸속에 있는 헤아릴 수 없는 그 중생들이 제가끔 너 나가 있는 데서 너 나 없는 데로 들어서, 즉 무심도를 깨쳐서 다시금 너 나가 있는 데로 다시 나오는 것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천차만별로 되어 있는 이 업보의 구덩이에서 용도에 따라 자기가 업 지은 대로 자꾸자꾸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잘산다 못산다, 질병을 앓는다 가환이 온다 이러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것이니 남에게 무꾸리나 해서 그걸 제거시키려고는 아예 하지 마세요. 어리석으니까 말입니다.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인연으로 말미암아 뭉쳐진 건데, 지금 현실에 솔솔 그것이 한 찰나에 나오고 있는 거에 속지 말라 이겁니다, 모두가. 속지 않고 진짜로 믿고 놓을 수 있다면, 하나하나 용도에 따라서 나오는 대로 거기에다가 맡겨 놓으시라 이겁니다. 그럼 뭐가 어떻게 되느냐. 맡겨 놓는 대로 그것은 화해서, 즉 말하자면 생산이 되는 겁니다. 나와서 보살로 화하는 겁니다.

만약에 아픈 것을 놓고 병이 나았다 했다면, 놓는다면 그것이 약사가 돼 버려요. 서로 때리고 치고받고 이래서 업보를 받은 게 악으로다가 돌아왔는데도, 그러니까 중생들이 자꾸 돌려서 내 마음을 충동질시키고 어려웁게 만들고 또 우환이 끼게 만들고, 때리고 주고받게 만들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는데 그것을 놓는다면 바로 약사로 화한다는 얘깁니다. 하나 화했으면 다음에 또 나오는 걸 거기다 놓으면 또 화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없는 나날을 보임하면 바로 전체가 다 보살로서 화합니다. 보살로 화하면 그것이 광이 나서 삼십이상이 구족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색깔 이 빛이. 예를 들어서 몸뚱이 물질 자체가 모두 금광으로서의 자력이나 광력이나 전력이 충만해서 같이 돌아가니까 어디 가서 섰어도 남한테 해롭게 안 하고 그 빛을 비춘다 이겁니다. 또 안으로는 삼십이응신으로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와서 말을 안 하고 가도, 정직하고 진실하다면 그 집을 벌써 왕래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수십억 마리의 그 중생들이 다 화해서 보살로서의 활용을 한다면 이 우주에 차고도 남고, 아니 계신 데가 없이 찰나의 살림살이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한 번 놓는 데 지옥고가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한 번 생각해서 놓는 데 지옥고가 찰나찰나에 무너지니 그 수없는 지옥고는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옥고가 무너짐으로써 나의 밝은 본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육조단경에도 그랬듯이,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마음은 체가 없으니 여러분 앉아서 부산을 한번 갔다 와 보세요. 한 찰나의 살림이 아닌가. 그런데 만약에 물이 있어서 못 건너간다, 배가 있어야 한다, 또 뱃사공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은 비유를 해 놓으신 것뿐이죠. 여러분이 한번 자심(自心)을 연구해 보세요. 지금이라도 집을 갔다 오시라면 금방 한 찰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집을 갔다 오시라고 했는데 강이 끼었다고 칩시다. 그러나 마음이 강이 끼었다고 못 갔다 오시겠습니까? 마음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옛날에 육조 스님도 말씀하셨듯이, 신수 대사가 말씀하신 거를 되받아서 "틀이 없는데 명경이 어딨으며, 명경이 없는데 먼지 앉을 데가 어디 있느냐." 하고 말을 했듯이, 우리 마음 자체는 한 생각 잘하면 이 세상을 다 주름잡을 수 있고 한 생각 잘못하면 구덩이에 빠져서 허덕인다 이겁니다. 우리 한 생각에, 마음을 깨쳐서 정신세계로써 정신통일을 하고 정신통일로써 이 세계를 우리 한 생각에 넘어설 수 있다면 여러분은 대인에 가깝

☞ 26면으로 계속

